

한지, 포교하고 지역 경제 살리고...

참좋은우리절 '사찰행화와 전주한지의 만남' 개최



부처님전에 한지수가 봉헌되고있다.



어린이들이 한지 공예를 체험하는 모습.

전주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이 지역 특산품인 한지(韓紙, 한국 고유의 기법으로 뜬 종이) 홍보에 나섰다. 참좋은우리절은 3월 18일 전주 감색 한지에 순금가투를 넣어 그려서 고려시대 금니기법을 활용한 104위 신중행화 조성을 완료하고 신중행화 점안식을 봉행했다.

위한 한지수익이 부처님 전에 봉헌 됐으며, 전주시가 한지로 만든 이불과 베개 등도 불전에 올려졌다. 또 참좋은우리절 주지 회일 스님이 한지로 만든 장삼과 가사를 수하고, 송하진 전주시장이 한지 넥타이를 매는 의식이 진행됐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전주한지를 보전·개발하기 위

제발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부 행사로 '사찰행화와 전주한지의 만남'을 주제로 한 한지체험의 장이 마련됐다.

전주시는 이날 사찰 경내에 한 브랜드 홍보관을 설치, 한식과 한지 등의 우수성을 알렸다.

특히 한지전시회에는 한지로 만든 가사, 장삼, 승복, 연등, 인형, 축원카드, 다(茶), 좌복 등 이 전시되고, 한지연등 소품바구니 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한지공예 체험전이 펼쳐졌다.

이밖에도 법구경 목판 인쇄, 다도(茶道) 체험 등과 전통장류와 사찰음식, 전주비빔밥 시식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됐다.

이번 행사는 참좋은우리절 회일 스님이 '전통 한지산업 육성에 불교가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 아래 전주시 한브랜드과와 협력해 개최하게 됐다.

전주=김원우 기자

신중행화 점안 및 한지수의 봉헌 한지공예·다도체험 등 행사 다채

이날 점안식에서 조계종 원로 위원인 활안 스님(천자암 주지)은 법문을 통해 "잘사는 법은 항상 열려 있고, 번뇌 망상은 한낱 낭비일 뿐"이라며 "모든 일은 열심히 하면 관세음보살님이 다 되게 해준다"고 말했다. 법문에 이어 참좋은우리절의 노보살 모인인 미타화 회원들을

해 한지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한지산업 진흥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불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주지 회일 스님은 "불교가 사회적 역할 뿐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것도 다 해줘야 한다"며 "불교가 중생들을 위해 소득창출과 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개관

무료진료·치매노인주간보호 등 서비스



개관식에는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을 비롯해 1000여명이 참석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지관)이 위탁, 조계사(주지 원담)가 운영하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이 3월 21일 개관식을 봉행했다.

지난달 1일 문을 연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지상 4층 규모로, 55개의 사회교육프로그램과 무료진료·치매노인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2000여명의 어르신이 회원으로 가입해 혜택을 받고 있다.

개관식에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 스님과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지안 스님, 승가원장에 이동시설원장 동욱 스님, 김충용 종로구청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 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조계종 총무원과 조계사가 자리한 종로지역 주민복지활동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02)742-9500

여수령 기자

선리연구원 1차 월례발표회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4월 7일 오후 3시 서울 정법사 극락전에서 제1차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법진 스님이 '중앙선원 <간거방함록>과 선종부흥'을, 김선민 회계사 기획실장이 '근현대 불교운동사에서 여성불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서재영 조계종 불학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조승미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가 참여한다. (02)734-9653

여수령 기자

창원 성주사 정진설법회

창원 성주사주지 원정아가 부처님 출가-열반절을 맞아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제10회 니르바나 정진 대 설법회'를 개최한다.

26일 입제식을 시작으로 8일간 지안(조계종 승가대학원장) 지선(장성 백양사 유나) 일면(조계종 군중교구원장) 활안(조계종 원로 의원) 법등(조계종 호계원장) 청강(부산 육천사 회주) 지현(조계

종 기본선원장) 홍교(성주사 회주) 스님이 법사로 나서 법문한다. 법회는 매일 오전 10시 20분에 시작해 법문과 108참회, 정근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05)262-0108

여수령 기자

능인정사 이웃돕기 일일차집

서울 자양동 능인정사 포교원(주지 법경)은 3월 30일 포교원 지하 커피숍에서 소년소녀가장 및 난치병 환우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차집을 개최한다.

능인정사 포교원 신도회와 관음회 회원들이 마련하는 일일차집은 올해 네 번째로, 수익금 전액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여진다.

법경 스님은 "우리 주위에는 독거노인이나 난치병을 앓는 사람, 힘겹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소년소녀가장들이 많다"며 "이들에게 따뜻한 도움이 손길을 나눠준다는 뜻에서 많은 불자들이 참여해 인연을 맺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02)3436-5268 국민은행 776-01-0013-511(예금주 능인정사)

여수령 기자

“교각 스님 은혜 깊으러 왔어요”

대만 원조사 불자들 지장보살 원력 담은 경극·성가 부산서 공연

대만의 남쪽 도시 까오슝, 한국의 부산처럼 불심(佛心)이 강하기로 유명한 도시다. 까오슝의 대표적인 사찰 원조사(주지 경정) 대중들이 한국 불자들을 위한 선물을 들고 부산을 찾는다.

대만 불자들이 준비한 선물은 지장보살의 전생 이야기를 경극으로 꾸민 '지장보살전-바라부녀 어머니를 구하다'와 대만의 불교 성가(聖歌), 대만의 사찰이 한국을 방문해 공연을 여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평소 지장보살의 원력을 닮고 싶어 지장보살 사상 연구와 포교에 힘쓰는 원조사 주지 경정 스님의 오랜 원력이 담긴 방문이기도 해 더욱 의미가 깊다. 안국선원(선원장 수

불이) 한국에서의 공연 준비 일체를 도맡았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는 원조사 사부대중은 194명. 원조사 신도들로 구성된 '김교각 경극단' 단원 60명과 대만 불교 성가를 들려줄 고승시 고산부녀합창단, 원조사 여래저성 합창단 단원 120명 등이다. 4월 7·8일 오후 7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하루 한차례씩 열리는 공연을 위해 입국한다.

4월 5일부터 10일까지 4박 5일 동안 이뤄지는 이들의 방문 목적은 아주 뚜렷하다. 신라 왕자였던 김교각 스님의 고향땅을 찾아 교각 스님의 은혜를 갚겠다는 지극한 마음으로 한국 불자들을 위한 공연을 여는 것

이다. 공연에 차질이 없는 일정 내에서 통도사, 불국사, 운문사를 방문해 한국 불교를 체험하고 배우는 시간도 갖는다.

이들은 이미 1년 전부터 꼼꼼한 준비를 해왔으며 단 한 번의 공연을 위해 5차례나 부산을 방문, 최상의 공연을 선보이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다. 이미 대만에서는 여러 차례 공연을 가져 호평을 받은바 있지만 무대가 바뀌고 언어가 다른 한국 공연이라 소품, 분장, 조명, 특수음향 등에 한층 더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교각 스님의 고향땅에서 울리는 공연인 만큼 조금의 차질도 없는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지장보살의 대비심과 원력을 오롯이 전하겠다는 원

조사 대중들의 마음이 읽히는 대목이다. 엄청난 경비에도 불구하고 일체 입장권을 판매하지 않는 것도 경정 스님의 뜻이다. 교각 스님의 땅에 살고 있는 한국 불자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했기 때문이다.

이날 무대에서는 불교 성가도 불려진다. 불교 성가는 대만에서 음악계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황우지 교수가 곡을 쓰고 경정 스님 등이 작사한 곡으로, 대만 불교 음악을 접할 수 있는 보기 드문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연 준비를 맡게 된 수불 스님은 "중생 제도의 원력으로 중국 땅에서 교화와 덕행을 펴 보인 교각 스님의 은혜를 갚기 위한 대만불자들의 신심이 새삼 감탄한다"며 "이번 공연은 이분들이 한국 불자에게 울리는 공양이 많은 분들이 와서 그들의 신심과 원력에 화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은 무료이며 7일은 경극, 8일에는 합창이 공연된다. (05)1583-0999 천미희 객원기자

진절공무원 시상 요청 옥천불교사암연합회



옥천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현관) 회원 12명은 3월 19일 옥천군청 상 황실에서 한용택 옥천군수와 군정현황 및 사찰운영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사진).

이 자리에서 옥천불교사암연합회는 영구대사 추모제와 증봉총렬제를 함께 봉행할 것과 옥천불교사암연합회가 옥천군 진절공무원을 선정, 시상할 것, 지역의 범종단 종교지도자들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한용택 옥천군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해철 대전·충북 지사장

봉

축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초대 종정 추대 및 국태민안 기원 대법회

本宗은 釋迦牟尼佛을 教祖로 太古 普愚國師를 宗祖로 하고 釋迦世尊의 自覺覺他 覺行 원만한 根本教理를 奉體하며 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을 宗旨로 新羅 道義國師로부터 원천된 迦智山門에서 起源하여 佛法 中興의 圓融宗風을 宗統으로 삼아 그 法脈을 繼承한다.

법요식

- ◆일 시 : 불기 2551년 정해년 4월 3일 (음, 2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 소 : 경북 구미시 남동동 산 37번지 경상북도 금오산 자연환경 연구원
- ◆연수원 : (054)452-4509
- ◆문 의 : (054)464-4725, (054)464-4735 / 010-6339-9765, 010-4802-5288

- 본 행사에 동참하실 스님은 사전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초청하지 않은 타 종단 스님은 거마비 일체 지불하지 않음.
- 함께할 증도 및 사함을 모집합니다.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장 석능인 • 총무원 : 경북 구미시 사곡동 670-1번지